

부/모¹⁾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가족 삼각화와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의 매개효과*

한 나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가족 삼각화와 또래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부모-자녀의 성별 조합에 따른 성차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 406명(남: 222명, 여: 18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평가를 실시한 후, 성별에 따른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성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또래를 향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 반면, 이성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간접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기여하였다. 즉, 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족 삼각화를 매개하여 남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기여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부의 심리적 통제가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를 매개하여 여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기여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가족의 역기능적 관계패턴을 수정하기 위한 맥락적 개입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관계적 공격성, 심리적 통제, 가족 삼각화, 자기평가

1)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부/모'로 표기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로 표기하였다.

* 이 논문의 일부는 2015년 미국심리학회(APA) 연차학술대회(annual convention)에서 발표되었다.

†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649, E-mail: Slee1@ewha.ac.kr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발생빈도가 전년 대비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주관적인 고통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고되며, 자살 사고와 학교폭력에 대한 복수충동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공격행동을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간접적이고 은밀한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했을 때,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또래 괴롭힘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성(한국교육개발원, 2015)도 보고되었다.

관계적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조종할 목적 하에 사회적인 집단으로부터 배척하거나 거절하는 것,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것 등을 말한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공격성만큼 해로운 결과를 야기시키지만(Crick, 1996), 외현적인 공격성에 비해 공격행동의 표출이 직접적이지 않아 감지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학생 시기는 또래 괴롭힘이 증가할 뿐 아니라, 외현적 공격성이 점차 감소하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하는 시기이다(Pellegrini & Long, 2002). 이 시기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하면서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관계적 공격성은 흔히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공격성 유형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였으나(Crick & Grotpeter, 1995), 메타분석 결과에서 남성과 여성 간 관계적 공격성 간 차이는 연령, 인종, 국가에 상관없이 무시할 만한 수준임이 밝혀졌다(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Forrest & McGuckin, 2002). 즉, 관계적 공격성은 여성의 공격성만을 대표하지 않으며, 남성이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의 특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Sweaver, 2008)이 시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공격성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성차가 보고되고 있으므로(Burton, Hafetz, Henninger, 2007), 관계적 공격성의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발달기제는 사회학습이론과 애착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가족 내에서 자녀가 부모의 관계적인 공격성을 관찰, 모방, 모델링하면서 또래관계 상호작용에서 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Bowlby의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은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하는 자녀의 자기표상이나 타인표상과 같은 내적 작동기제와 이러한 작동기제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즉, 가정 내에서 침입적(intrusive)이거나 심리적으로 조종하는(manipulative) 부모로부터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정서적 불안정감이나 거절감을 보상하고자 또래관계에서 관계적인 공격행동을 보일 수 있다(Michiels, Grietens, Onghena, & Kuppens, 2008). 이러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가족맥락에서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양상이 또래관계 맥락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역기능적

가족맥락 중 부정적인 부모양육행동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가 부부갈등에 부적절하게 참여하는 '가족 삼각화'의 두 가지 역기능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는 부모가 부모-자녀 유대를 활용하여 자녀를 통제하고, 죄책감·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자녀에게 실망감을 표현하며, 자녀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보이거나 과잉보호하는 등 여러 심리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Barber, 1996; Nelson & Crick, 2002).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는 부모가 자녀를 정서적·사회적으로 교묘하게 조종한다는 측면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양상(Reed, Goldstein, Morris, & Keyes, 2008)에 해당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들은 또래관계에서 타인의 거부나 낙인을 이끌 수 있는 외현적인 공격성보다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관계적 공격성을 흔히 보인다(Xie, Cairns, & Cairns, 2002).

지난 20년 간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해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채 행해져 왔다(예, 김경아, 권해수, 2015; Soenens, Vansteenkiste, Goossense, Duriez, & Niemiec, 2008). 한편,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주양육자인 모의 심리적 통제만 살펴본 연구들도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일관되게 보고했다(예,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반면, 자녀의 성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

모의 성별만 구분하여 심리적 통제를 살펴본 연구들 간에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모두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예, 이하연, 박주희, 2014), 부의 심리적 통제만(예, Nelson & Crick, 2002) 또는 모의 심리적 통제만(예, Albrecht, Galambos, & Jansson, 2007)이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심지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 간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존재한다(예,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이러한 선행연구들 간 불일치는 연구대상자의 발달적 차이, 정보제공자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나, 부모와 자녀의 성별 조합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Kuppens, Laurent, Heyvaert, & Onghena, 2013; Underwood, Galenand, & Paquette, 2001).

이와 관련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Kuppens 등(2013)은 두 변인 간 관련성에서 부모-자녀 성별 조합을 고려한 복합 조절효과 분석(complex moderating analysis)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성 성인 보다 동성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Deater-Deckard & Dodge, 1997), 동성부모 혹은 이성부모의 영향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의 성별 뿐 아니라 자녀의 성별까지 고려한 학령전기 아동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 반면(Yang et al., 2004), 학령기 아동 연구에서는 모의 심리적 통제만이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켰다(Li, Putallaz, & Su,

2011). 이와 달리, 국내의 학령기 아동 연구에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남아와 여아 모두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 반면, 모의 심리적 통제는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만을 증가시켰다(김민정, 도현심, 2001).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성별 조합을 고려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 모두 부재한 상황이다.

청소년 시기는 부모-자녀 간 높은 갈등을 보이는 시기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는 학령전기나 학령기에 비해 청소년 시기에 더욱 강력한 관련성을 보인다(Kuppens et al., 2013). 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추구하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때문인데, 청소년 시기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더욱 역기능적인 결과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가족 삼각화'는 가족관계 역동에서 발생하는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양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삼각화(triangulation)는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제 3자를 끌어들이어 갈등을 우회하는 것인데, 특히 가족 삼각화란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긴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부부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Bowen, 1978; Minuchin, 1974). 가족 삼각화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자녀가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자, 중재자,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자녀의 부적절한 참여'이고, 두 번째 특성은 자녀에게 부모 중 한쪽 편을 들

도록 강요하는 '충성심 갈등(loyalty conflict)'이며, 세 번째 특성은 한쪽 부모가 자녀와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고 상대 배우자를 제외시키는 '세대 간 연합(cross-generational coalition)'이다(Keig & Swanson, 2010). 종합해보면, 가족 삼각화는 부부 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이어 상대 배우자를 관계적으로 공격하는 특징을 지니며, 부모와 자녀 간의 이자관계(dyadic relation)를 넘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역동, 즉 삼자관계(triadic relation)를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몇몇 선행연구들(Li et al., 2011; Underwood, Beron, Gentsch, Galperin, & Risser, 2008)은 가족 삼각화를 포함한 부정적인 부부갈등 해결전략(예,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 비협조, 가족 삼각화) 또는 내재적인(covert) 부부갈등 해결전략(예, 전반적인 내재적 행동, 가족 삼각화)이 심리적 통제를 매개하여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두 연구는 부부갈등이라는 부부관계 영역에서의 부정적인 관계가 부모-자녀관계 영역의 부정적인 관계로 파급(spillover)되는 특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부갈등과는 달리, 가족 삼각화는 기본적으로 특정 부모와 자녀 간 과잉-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가정한다(Kerig & Swanson, 2010). 즉, 가족 삼각화는 가족관계의 균형을 깨며, 한 부모가 자녀와 가까이 지내면서 상대 배우자를 관계적으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 부부갈등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 의해 가족 삼각화에 연루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양육방식인 심리적인 통제가 가족 삼각화보다 선행하는 관계적 구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Cowan과 동료들은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이 자

녀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관계성을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가 각각 부부관계를 매개하여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Schulz, Pruett, Kerig, Parke, 2010).

이러한 구조적 방향성은 부모-자녀 간 하위경계와 자아분화를 강조한 고전 가족치료 이론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Bowen의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은 가족 삼각화가 극단적인 불안한 애착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불안한 애착을 융합(fusion) 또는 미분화된 자아(differentiated self) 상태로 보았다(Guerin, 1996). 부모-자녀 간 융합된 상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방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방식을 통해 밀착된(enmeshed) 관계 양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Nelson & Crick, 2002). 가족연구에서는 밀착된(enmeshed)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자율성을 방해하는 통제적이거나 제약적인 상호작용 방식, 즉 심리적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Barber & Buehler, 1996).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며(Barber, 1992),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간 융합 또는 경계선 확산(boundary diffusion)에 기여하게 된다(Perrin, Ehrenberg, & Hunter, 2013).

이를 종합해보면, 부모가 자녀의 감정이나 생각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양육방식은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연합되거나 미분화된 부모-자녀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과잉 밀착된 부모-자녀관계는 부부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이 상대 배우자를 제외시키는 가족 삼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의 관계 역동, 즉, 가족 삼각화에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 삼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던 점(Kerig, Brown, & Pantenaude, 2001)과 가족 삼각화를 포함한 부부갈등 전략이 청소년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 점(Li et al., 2011; Underwood et al., 2008)을 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족 삼각화를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 가족 삼각화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symbolic interactionist theories: Cooley, 1972; Mead, 1934)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중요한 타인들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개념(self-concept)에 통합된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되는 특성이 있지만,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중요한 사건이나 일상생활의 변화에 민감하고 시간적 가변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된다(Rice & Dolgin, 2008). 그 중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 시기는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게 보고되는 시기이다(Sternberg, 2011).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또래와 연합하면서 또래의 평가나 인정에 더욱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가치감과 자기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Bierman, 2004). 또한 부모로부터 높은 심리적인 통제를 받아온 자녀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더욱 민감한 경향성을 보이는데(김경아, 권해수, 2015; Loukas et al., 2005),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체감,

자기효능감, 존중감을 침해함으로써(장경문, 2011; Beam & Northrup, 2009), 자녀의 자기도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자기도식(self-schema)은 과거 경험들로부터 획득한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일반화이며,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참조체계로서 기능한다(Markus & Smith, & Moreland 1985). 따라서 부정적인 자기도식을 지닌 청소년들은 또래 맥락에서도 사회적 정보를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들은 자신을 거절하거나 공격하는 또래에 대한 방어와 복수를 하고자 눈에 띄지 않는 간접적인 방식의 관계적인 공격을 선택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Moretti, Holland, & Mckay, 2001). 즉, 여자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기도식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였으나, 남자 청소년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리적 통제라는 역기능적인 부모-자녀관계로부터 만들어진 부정적 자기도식이 또래 불인정 상황에서도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에 주목하였다. Rudolph, Caldwell과 Conley(2005)에 의하면,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negative approval-based self-appraisals)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선호되지 않는 상

황에 기초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또래 불인정에 기반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 평가에 대한 높은 우려를 보고하는데(Rudolph et al., 2005), 특히, 여아의 경우에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Loukas et al., 200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 또래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공격성이 또래관계 맥락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별 다집단 분석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가족 삼각화와 또래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가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그림 1).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두 개 중학교에서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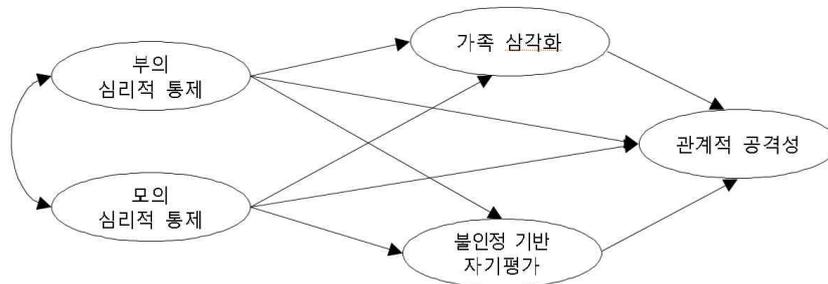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명의 1-3학년 중학생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거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함께,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 중 비(非)동거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청소년의 자료를 포함한 총 22부(5.1%)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양부모의 심리적 통제 영향을 모두 고려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남학생 222명(54.8%)과 여학생 184명(45.2%)인 총 406명의 자료가 다집단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13.90세($SD=1.02$)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Barber(1996)의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PCS-YSR)를 조주연(2010)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부/모 각 8문항)으로, 원척도는 3점 리커트식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의 정도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자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 불인정(invalidating feelings)과 자기표현 제한, 개인적 공격, 애정 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8, .86 이었다.

가족 삼각화

가족 삼각화에 대한 단일척도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예, Buechler, Franck, & Cook, 2009)의 방식대로 기존의 두 개 척도로부터 가족 삼각화와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여 총 6문항을 통해 측

정하였다. 먼저 Grych, Seid와 Fincham(1992)의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한 '가족 삼각화 하위척도' 중 2문항을 추출하였고(예,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 사이에 낀 것 같아 난처하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할 것처럼 느낀다), 전연진(2002)의 가족분화경험 척도에서 가족 삼각화와 관련된 4문항을 추출하였다(예, 부모님끼리 싸우면 아버지(또는 어머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기를 은근히 바라셨다). 이는 4점 리커트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삼각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 삼각화의 내적합치도는 .80 이었다.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

Rudolph 등(2005)의 The Need for Approval Questionnaire(NAQ)를 김지형과 박경자(2008)가 변안한 것 중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negative approval-based self-appraisal) 하위척도(4문항)를 사용하였다. 이는 4점 리커트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기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예,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창피하다/내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진다). 본 연구에서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의 내적 합치도는 .88 이었다.

관계적 공격성

Marsee와 Frick(2007)의 Peer Conflict Scale(PCS)를 하문선과 김지현(2013)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축약한 척도 중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하위척도 총 8문항(주도적 관계

적 공격성 4문항,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4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내적 합치도는 .81(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75, 도구적 관계적 공격성 .79) 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인들 간 상관분석 및 성차분석을 하였다. 또한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의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다집단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척도 중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인부하량 크기에 따라 지그재그 방식으로 묶은 문항 묶음화 방식(item parceling)을 활용하여 측정변수를 형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 묶음화 방식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3개, 가족 삼각화 3

개, 또래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는 2개의 측정변수를 형성하였다.

다집단 분석에서는 연구모형 및 자료의 부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χ^2 검증과 세 가지 근사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보고하였다(Kline, 2012). 또한 집단 간 동일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obel test (1982)를 실시하였다.

결 과

잠재변인 간의 상관 및 성차 분석

성별로 영차 상관분석(zero-order correlation)을 실시한 결과, 남녀 모두에게서 부모 심

표 1. 잠재변인 간의 상관 및 성차 분석 (남 n=222 여 n=184)

	1	2	3	4	5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	.51***	.38***	.25**	.02	
2. 모의 심리적 통제	.60***	-	.35***	.21**	.20**	
3. 가족 삼각화	.29***	.40***	-	.22**	.12	
4.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	.20**	.32***	.13	-	.19*	
5. 관계적 공격성	.37***	.32***	.33***	.10	-	
M	남	11.88 (4.79)	13.50 (5.03)	8.51 (3.20)	6.70 (2.89)	8.95 (2.36)
	여	11.22 (4.11)	12.21 (3.97)	8.47 (2.44)	6.97 (2.83)	8.86 (1.60)
t		1.49	2.89**	.14	-.94	.42

주. 상관분석의 대각선 아래: 남자 청소년, 대각선 위: 여자 청소년, * $p < .05$, ** $p < .01$, *** $p < .001$

리적 통제는 가족 삼각화($r_{남}=.29, r_{여}=.38, p<.001$), 또래 불안정에 기반한 자기평가($r_{남}=.20, r_{여}=.25,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모의 심리적 통제는 가족 삼각화($r_{남}=.40, r_{여}=.35, p<.001$), 또래 불안정에 기반한 자기평가($r_{남}=.32, p<.001; r_{여}=.21, p<.01$), 관계적 공격성($r_{남}=.32, p<.001; r_{여}=.2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상관분석에서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먼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r_{남}=.37, p<.001$), 가족 삼각화와 관계적 공격성($r_{남}=.33, p<.001$)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또래 불안정에 기반한 자기평가와 관계적 공격성($r_{여}=.19, p<.05$)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립집단 t검증을 통해 성차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게 보고하였으나($t=2.89, p<.01$), 이를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집단에 따른 다집단 분석

남녀 집단 모두에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각 성별 집단 별로 실시하였다(Anderson & Gerbring, 1988). 그 결과, 남자 청소년 집단의 χ^2 검증은 유의미하였으나($\chi^2(55)=138.452, p<.001$),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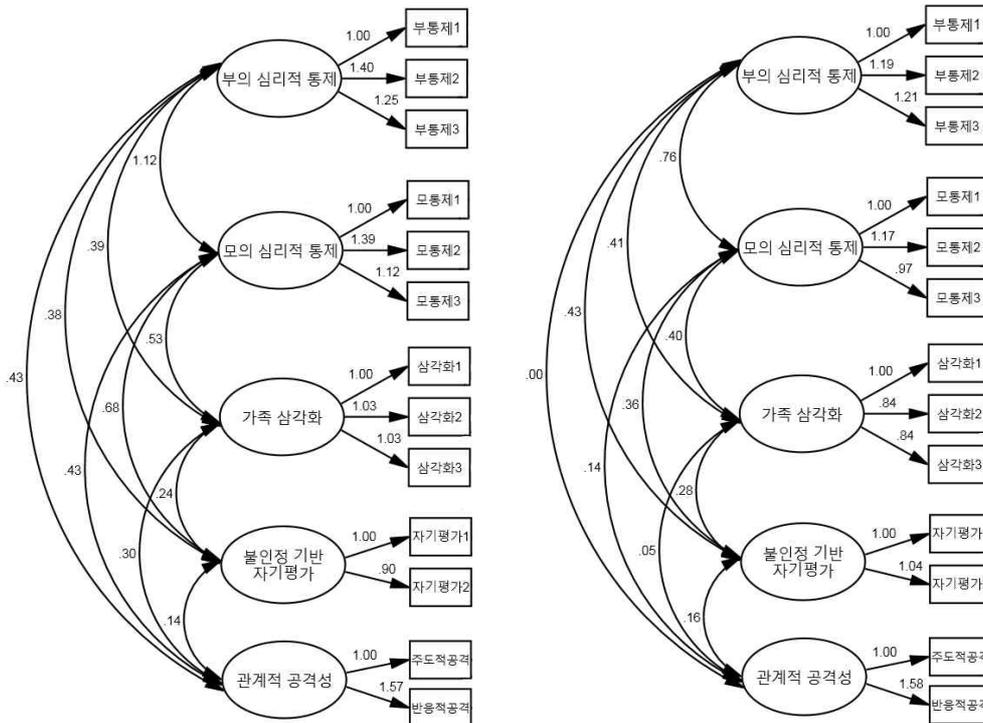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부하량 (왼쪽: 남자 청소년, 오른쪽: 여자 청소년)

주.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제시함.

는 측정모형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FI=.947, SRMR=.048, RMSEA=.071 [90% CI: .056-.090]).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도 χ^2 검증은 유의미하였으나($\chi^2(55)=91.080, p<.01$),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는 측정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FI=.965, SRMR=.048, RMSEA=.060 [90% CI: .037-.081]).

그림 2에는 Kline(2012)의 제안에 따라 남녀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비표준화 계수로 표기하였는데, 남녀 집단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유의하였으며($p<.001$), 표준화된 요인부하량도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beta_{남}=.61\sim.92, \beta_{여}=.67\sim.90$).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남녀 집단 간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을 확인하였다. 먼저, 형태동일성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χ^2 검증은 유의미하였으나($\chi^2(110)=229.520, p<.001$),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는 측정모형이 적절하였으므로(CFI=.954, SRMR=.048, RMSEA=.052 [90% CI: .042-.061]), 형태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동일성에 대한 분석결과, χ^2 검증은 유의미 하였으나($\chi^2(118)=238.476, p<.001$), 다른 적합도 지

표 2.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 집단 차이 비교 (남 n=222 여 n=184)

경로	χ^2	df	$\Delta\chi^2$	Δdf	CFI	SRMR	RMSEA [90% CI]
기저모형	240.775	120	-	-	.954	.049	.050 [.041-.059]
부의 심리적 통제 → 가족 삼각화	242.520	121	1.745	1	.954	.050	.050 [.041-.059]
모의 심리적 통제 → 가족 삼각화	241.428	121	.653	1	.954	.049	.050 [.040-.059]
부의 심리적 통제 → 불안정 기반 자기평가	244.278	121	3.503	1	.953	.050	.050 [.041-.059]
모의 심리적 통제 → 불안정 기반 자기평가	242.989	121	2.214	1	.953	.050	.050 [.041-.059]
부의 심리적 통제 → 관계적 공격성	252.440	121	11.665***	1	.950	.055	.052 [.043-.061]
모의 심리적 통제 → 관계적 공격성	241.626	121	.851	1	.954	.050	.050 [.041-.059]
가족 삼각화 → 관계적 공격성	242.437	121	1.662	1	.954	.051	.050 [.041-.059]
불안정 기반 자기평가 → 관계적 공격성	240.775	121	0	1	.954	.049	.050 [.041-.059]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268.255	128	27.480***	8	.946	.067	.052 [.043-.06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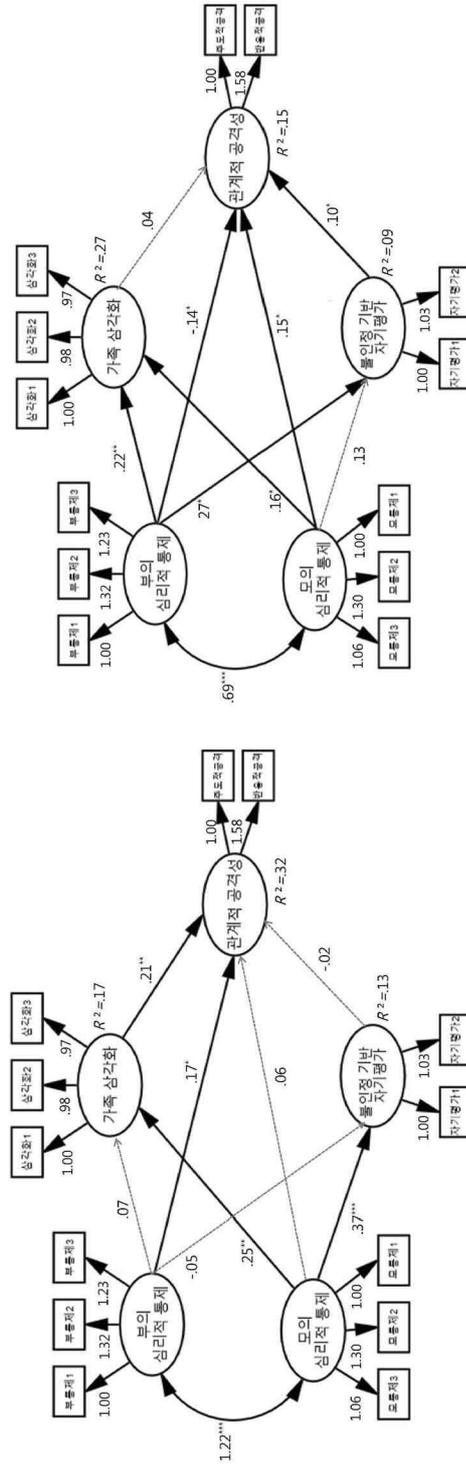


그림 3. 남녀 청소년의 연구모형 (왼쪽: 남자 청소년, 오른쪽: 여자 청소년)

주. 남녀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비표준화 계수를 제시, * $p < .05$, ** $p < .01$, *** $p < .001$

수에서는 측정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954, SRMR=.048, RMSEA=.050 [90% CI: .041- .059]). 기저모형인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검증은 유의하지 않아($\Delta\chi^2(8)=8.95$, n.s), 완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 남녀 집단 간 동일한 구조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남녀 집단의 경로계수에서 성차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측정동일성에 내재된 모형 중 경로계수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기저모형)과 8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하는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만 남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1)=11.665$, $p<.001$).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잠재변인들 간 관

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비표준화 계수를 표기하라는 Kline(2012)의 제안에 따라 연구모형(그림 3)에는 비표준화된 계수로 표기하였으며, 집단 내 비교를 위하여 표준화된 계수도 제시하였다(표 3).

먼저, 남녀 모두에게서 모의 심리적 통제는 가족 삼각화($B_{남}=.25$, $p<.01$; $B_{여}=.16$, $p<.05$)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부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가족 삼각화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_{여}=.22$, $p<.01$).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의 심리적 통제($B_{남}=.37$, $p<.001$)가,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의 심리적 통제($B_{여}=.27$, $p<.05$)가 또래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게다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의 심리적 통제만이 관계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B_{남}=.17$, $p<.05$)

표 3. 남녀 집단별 구조모형 모수 추정치

(남 n=222 여 n=184)

경로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부의 심리적 통제 → 가족 삼각화	.07	.08	.10	.22**	.07	.33
모의 심리적 통제 → 가족 삼각화	.25**	.08	.35	.16*	.07	.25
부의 심리적 통제 →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	-.05	.11	-.05	.27*	.13	.23
모의 심리적 통제 →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	.37***	.11	.39	.13	.13	.11
부의 심리적 통제 → 관계적 공격성	.17*	.07	.31	-.14*	.06	-.29
모의 심리적 통제 → 관계적 공격성	.06	.07	.12	.15*	.06	.32
가족 삼각화 → 관계적 공격성	.21**	.07	.29	.04	.09	.06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 → 관계적 공격성	-.02	.05	-.03	.10*	.04	.25

* $p<.05$, ** $p<.01$, *** $p<.001$

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모두가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서로 상이했는데, 여자 청소년에게서 모의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B_{모}=.15, p<.05$)한 반면, 부의 심리적 통제는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_{부}=-.14, p<.05$). 게다가 가족 삼각화는 남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만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_{남}=.21, p<.01$), 또래 불안정에 기반한 자기평가는 여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만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_{여}=.10, p<.05$). 더욱이 본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관계적인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_{남}=.32, R^2_{여}=.15$).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obel test(1982)를 실시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가족 삼각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z=2.16, p<.05$).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 불안정에 기반한 자기평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z=1.60, n.s$). 이 외의 간접 경로는 잠재변인들 간 직접 효과의 부재로 매개효과 분석을 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가족 삼각화와 또래 불안정에 기반한 자기평가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 성차가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밝힌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 간 조합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성차 분석결과에서, 본 연구의 남녀 청소년은 서로 유사한 정도로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는 기존 연구들(예, Card et al., 2008; Forrest & McGuckin, 2002)과 일치한다. 비록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에서는 성차가 없었지만,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정적 자기도식 등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성차가 보고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에서, 동성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또래를 향한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이성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 불안정에 기반한 자기평가를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해석에 제약이 있지만,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족 삼각화를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맥락에서의 관계적 공격성 간 직접적 관련성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부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또래를 향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또래를 향한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 이는 자녀가 동성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반복 경험함으로써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직접적으로 모방하며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또래에게도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하게 됨을 보여준다. 동성 부모의 심리적 통제방식을 직접적으로 모방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이성 성인에 비해 동성 성인의 행동모방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성(Deater-Deckard & Dodge, 1997)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모녀관계나 부자관계 같은 동성의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이 모자관계나 부녀관계 같은 이성의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보다 더욱 강력하다는 선행연구(Isley, O'Neil, Clafelter, & Parke, 1999)와 일치한다.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신체적 처벌의 영향을 살펴본 김민정과 도현심(2001)의 연구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는 남녀 모두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 반면, 모의 심리적 통제는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만 증가시켰는데, 이는 동성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두 변인 간 관계는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나타난 억제 현상으로 파악된다. 억제 현상(suppressor phenomenon)이란, 영차 상관관계(zero-order relationship)에서는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이 정적 관련성이 있었으나, 구조방정식과 같은 다변량 모델(multivariate model)이 포함되었을 때 두

변인 간 관련성이 부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Massen & Bakker, 2001). 즉,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 가족 삼각화와 또래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련성이 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여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의 가족 삼각화를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부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가족 삼각화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자녀를 향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아들이나 딸 모두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가족 삼각화에 개입되는 반면, 부의 심리적 통제는 딸과의 관계에서만 가족 삼각화를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서적 관계역동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인종이나 문화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모와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모와 상의함으로써, 부에 비해 모가 청소년의 삶에 더욱 깊게 개입되고 자녀를 통제하는 경향을 높게 보인다(Updegraff, McHale, Crouter, & Kupanoff, 2001). 특히, Bowen이 가정 내 강렬한 정서적 밀착을 모자공생관계(mother-child symbiosis)로 설명하면서 어머니와 자녀 간 미분화된 정서적 관계를 강조한 점(Guerin, 1996)도 이를 반영해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족 삼각화 수준에서 성차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모두 여자 청소년의 가족 삼각화를 증가시킨 점은 부모에 의해 삼각화에 가담되는 경

향성이 남아보다 여아가 더욱 높다는 결과 (Margolin, Gordis, & John., 2001)를 지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성부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삼각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딸이 가족 삼각화에 개입되는 수준이 높아졌고, 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들이 가족 삼각화에 개입되는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부모가 자신과 과잉-밀착된 (enmeshed) 이성자녀를 부부갈등에 끌어들여서 자신의 편에 서게 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이성자녀와의 과잉 밀착된 관계를 앞세워 상대 배우자를 소외시키거나 관계적으로 공격하는 삼각화의 양상은, 부부갈등이 극심할 때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경험하는 친밀감이나 정서적 지지 등을 이성자녀에게 기대하는 배우자화(spousification)의 기능과도 부분적으로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가족 삼각화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관계는 후속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한편,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 삼각화 정도가 높을 때 또래를 향한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가족 삼각화 전략을 포함한 모의 간접적인 부부갈등 해결 전략이 남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 반면, 여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Li 등(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가족 삼각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들에 대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고 모자관

계에서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을 경우에 아들이 가족 삼각화에 개입되는 경향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갈등해결방식을 학습한 남자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도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흔히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높은 관계적 공격성은 일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성역할에 정형화된 공격성보다 성역할에 비정형화된 공격성이 사회적인 비난과 부적응을 더욱 증가시켰던 점(Crick, 1997)을 고려할 때, 남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모의 심리적 통제와 가족 삼각화는 더욱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화 문제(Mathieson & Crick, 2010)와 내재화 문제(Card et al., 2008), 또래거부나 교사와의 갈등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Card & Little, 2006), 성격병리(Ostrov & Houston, 2008) 등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을 높게 보이는 남자 청소년을 위한 개입 시에는 가족 내에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상호작용 패턴이나 역기능적인 가족역동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개인의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는 개별적 개입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양육 방식을 훈련시키는 부모교육이나 역기능적인 가족 내 관계패턴을 수정하기 위한 가족치료 등의 맥락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 삼각화와 관계적 공격성 간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족 삼각화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가족 삼각화로 인해 내재화 문제가 증가되는 점(Grych, Raynor, & Fosco, 2004)과 여자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

안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점(Lewinsohn, Gotlib, Lewinsohn, Seeley, & Allen, 1998)을 모두 고려할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과 같이 가족 삼각화를 통해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모방하기보다, 가족 삼각화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 삼각화가 여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증가시키는지 탐색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이성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또래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를 증가시켰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자녀의 민감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김경아, 권해수, 2015; Loukas et al., 2005)로 설명 가능할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표상과 타인 표상을 형성하고 이러한 내적작동기제가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성부모의 심리적 통제만이 청소년의 또래 불인정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자기상 증가를 설명하였다. 이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특히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는 장경문(2011)의 연구결과와 통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중학생 시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로, 이성부모와의 과잉 밀착된 관계나 침입적인(intrusive) 관계양상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자기평가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또래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가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부정적인 자기도식이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를 가져온 반면, 남자 청소년의 부정적인 자기도

식은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Moretti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소통이나 친밀감을 더욱 중요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거부에 대한 민감성과 집단 소속욕구가 높다(이승연, 송경희, 안소현,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선호되지 않아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갖게 된 경우, 집단 내 유대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다(Vaillancourt & Hymel, 2006).

그러나 이성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또래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를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부정적 자기평가를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받아온 여자 청소년은 또래 불인정 상황에서 부정적인 자기상을 경험할 수 있고, 여자 청소년의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또래를 향한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각각의 직접효과는 밝혀진 상황이므로, 추후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부모양육 및 가족역동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관계적인 공격 전략을 모방하여 또래를 향한 관계적인 공격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여

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욱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여아에 비해 남아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남성 취약성 모델(Davies & Lindsay, 200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부부갈등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결과(Davies & Lindsay, 2004)도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Barber & Harmon, 2002)와 가족 삼각화(Grych et al., 2004)가 내재화 문제를 증가시키며, 청소년기에 여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더욱 증가하는 점(Lewinsohn et al., 1998)을 고려할 때,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과 달리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관계역동이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보다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의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 내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양상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른 발달적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탐색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발달기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의 영향을 살펴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관계적 공격성은 관계적 역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모와 가족의 역동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본 연구는 가족 내 관계적인 공격성을 탐색하고자 심리적 통제라는 이자관계(dyadic relation)의 특성 뿐 아니라, 가족 삼각화라는 삼자관계(triadic relation)의 역동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족 내 관계역동에서 부모-자녀 성별 조합을 고려함으로써, 동성부모, 이성부모의 관계역동이 자

녀의 성에 따라 상이한 발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가 미미하긴 하였으나, 청소년의 가족관계역동이 또래관계역동으로 재현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격성 측면에서도 건강한 가족관계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구조적 관계의 인과적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방식으로 자녀와 융합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부부관계에 자녀를 끌어들이 배우자를 공격한다는 관점에서 심리적 통제가 가족 삼각화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몇몇 연구들은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보다 선행한다는 관점에서 가족 삼각화가 심리적 통제보다 선행하는 관계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후자가 부부갈등에 자녀가 개입되는 가족 삼각화의 고유한 특성을 간과했음을 인정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모형 상 가족 삼각화와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는 선행연구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관계의 타당성이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여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 통계적으로 억제 현상(suppressor phenomenon)이 나타난 점이나 이러한 관계에서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점은 불인정에 기반한 자기평가의 문항 수가 적은 점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불인정 기반의 자기평가를 보다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

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만을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나 가족 삼각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모평정 방식을 포함시키거나,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공격성 측정에서 또래평정이나 교사평정 방식을 함께 포함하는 등 다수의 출처에 의한 정보 수집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경아, 권혜수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사회평가불안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1), 139-156.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 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지형, 박경자 (2010).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가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83-99.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이승연, 송경희, 안소현 (2015).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51-74.
- 이하연, 박주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8.
- 장경문 (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243-261.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부부갈등,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행동, 행동문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주연 (2010).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문선, 김지현 (2013).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 (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 한국교육개발원 (2015).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edi.re.kr/>
- Albrecht, A. K., Galambos, N. L., & Jansson, S. M. (2007).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 panel study examining direction of effec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5), 673-68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69-79.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 Buehler, C. (1996). Family cohesion and enmeshment: Different

- constructs, different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2), 433-441.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an, R. A., & Northrup, J. C. (2009).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sychological autonomy, and acceptance as predictors of self-esteem i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0, 1486-1504.
- Bierman, K. L. (2004).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rocess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New York, US: Guilford Press.
- Buehler, C., Franck, K. L., & Cook, E.C. (2009). Adolescents' triangulation in mari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9(4), 669-689.
- Burton, L. A., Hafetz, J., & Henninger, D. (2007).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5(1), 41-50.
- Card, N. A., & Little, T. D. (2006).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sis of differential relations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5), 466-480.
- Card, N. A., Stucky, B. D., Sawalani, G. M., & Little, T. D. (2008).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 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tercorrelations, and relations to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 1185-1229.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 2327.
-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610-61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Davies, P. T., & Lindsay, L. L. (2001). Does gender moderate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In J. H. Grych, F. D. Fincham (Ed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64-97). New York, NY,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es, P. T., & Lindsay, L. L. (2004). Inter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 adjustment: Why does gender moderate early adolescent vulner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1), 160-170.
- Deater-Deckard, K., & Dodge, K. A. (1997). Spare the rod, spoil the authors: Emerging themes in research on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Inquiry*, 8(3), 230-235.
- Forrest, S., & McGuckin, C. (2002). Adult indirect aggression: Do men 'catch up' with women in using indirect aggression.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10, 67-89.
- Grych, J. H., Raynor, S. R., & Fosco, G. M.

- (2004). Family processes that shape the impact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3), 649-665.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 Guerin, P. J. (1996).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The one-two-three of psychotherapy*. New York, US: Guilford Press.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87-697.
- Isley, S. L., O'Neil, R., Clatfelter, D., & Parke, R. D. (1999). Parent and child expressed affec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547-560.
- Kerig, P. K., Brown, C., Pantenaude, R., & El-Shiekh, M. (2001, April). Ties that bind: Coparenting, parent-child relations, and triangulation in post-divorce interpersonal conflicts. In M. El-Sheikh (Chair), *Marital Conflict and Child Outcomes: Processes, Risk Variables, and Protective Factors*.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 Kerig, P. K., & Swanson, J. A. (2010). Ties that bind: Triangulation, boundary dissolution, and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child development. In M. S. Schulz, M. K. Pruett, P. K. Kerig, & R. D. Parke (Eds.), *Strengthening couple relationships for optimal child development: Lessons from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59-76).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line, R. B. (2012).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US: Guilford Press.
- Kuppens, S., Laurent, L., Heyvaert, M., & Onghena, P. (2013).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ltilevel and sequenti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9*, 1697-1712.
- Lewinsohn, P. M., Gotlib, I. H., Lewinsohn, M., Seeley, J. R., & Allen, N. B. (1998). Gender differences in anxiety disorders and anxiety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09-117.
- Li, Y., Putallaz, M., & Su, Y. (2011).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parenting behaviors: Associations with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Chines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57*(4), 402-428.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assen, G. H., & Bakker, A. B. (2001). Suppressor variables in path models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0*(2), 241-270.
- Margolin, G., Gordis, E. B., & John, R. S. (2001). Coparenting: A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3-21.

- Markus, H., Smith, J., & Moreland, R. L. (1985). Role of the self-concept in the perception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494-1512.
-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69-981.
- Mathieson, L. C., & Crick, N. R. (2010). Reactive and proactive subtype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Links to concurrent and longitudinal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39*(4), 601-611.
- Michiels, D., Grietens, H., Onghena, P., & Kuppens, S. (2008).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28*(4), 522-540.
- Moretti, M. M., Holland, R., & McKay, S. (2001). Self - other representations and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9*(1), 109-126.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strov, J. M., & Houston, R. J. (2008). The utility of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Associa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1147-1158.
- Pellegrini, A. D., & Long, J. D. (2002).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dominance, and victimiz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hrough secondary school.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259-280.
- Perrin, M. B., Ehrenberg, M. F., & Hunter, M. A. (2013). Boundary diffusion, individuation, and adjustment: Comparison of young adults raised in divorced versus intact families. *Family Relations, 62*(5), 768-782.
- Reed, T. J., Goldstein, S. E., Morris, A. S., & Keyes, A. W. (2008). Relational aggression in mothers and children: Links with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 adjustment. *Sex Roles, 59*(1-2), 39-48.
- Rice, F. P., & Dolgin, K. G. (2008).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Boston, US: Allyn & Bacon.
- Rudolph, K. D., Caldwell, M. S., & Conley, C. S. (2005). Need for Approval and Children's Well-Being. *Child development, 76*(2), 309-323.
- Schulz, M. S., Pruett, M. K. E., Kerig, P. K., & Parke, R. D. (2010). *Strengthening couple relationships for optimal child development: Lessons from research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oenens, B., Vansteenkiste, M., Goossens, L., Duriez, B., & Niemiec, C. P. (2008). The intervening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friendship quality. *Social Development, 17*, 661-681.
- Steinberg, L. (2011). *Adolescence. 9th international edition*. New York, US: McGraw-Hill.
- Swearer, S. M. (2008). Relational aggression: Not just a female issu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1), 1-14.

- 44(6), 611-616.
- Underwood, M. K., Beron, K. J., Gentsch, J. K., Galperin, M. B., & Risser, S. D. (2008). Family correlates of children's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with peers: Negative interparental conflict strategies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6), 549-562.
- Underwood, M. K., Galenand, B. R., & Paquette, J. A. (2001). Top ten challenges for understanding gender and aggression in children: Why can't we all just get along? *Social Development, 10*(2), 248-266.
- Updegraff, K. A., McHale, S. M., Crouter, A. C., & Kupanoff, K. (2001). Parents' involvement i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3), 655-668.
- Vaillancourt, T., & Hymel, S. (2006).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The moderating roles of sex and peer-valued characteristics. *Aggressive Behavior, 32*, 396-408.
- Xie, H., Cairns, R. B., & Cairns, B. D. (2002). The development of social aggression and physical aggression: A narrative analysis of interpersonal conflicts. *Aggressive Behavior, 28*(5), 341-355.
- Yang, C., Hart, C. H., Nelson, D. A., Porter, C. L., Olsen, S. F., Robinson, C. C., & Jin, S. (2004). Fathering in a Beijing, Chinese sample: Associations with boys' and girls' negative emotionality and aggression. In R. D. Day, & M. E. Lamb (Eds.),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father involvement* (pp. 185-215). Mahwah, NJ: Laurence Erlbaum Associates.

1차원고접수 : 2015.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5. 12. 07.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9.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Mediation Effects of Family Triangulation and Negative Approval-based Self-appraisals

Na Han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family triangulation and negative approval-based self-appraisal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406 adolescents aged 12 to 15 (male: 222, female: 184) in Seoul, Korea. Self-report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psychological control enacted by same-sex parents directly increased adolescents' relational aggression. In contrast, psychological control from opposite-sex parents indirectly affected adolescents' relational aggression. In particular, the path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e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was mediated by family triangulation, which was the only significant mediation path in the present study.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 the importance of contextual intervention for modifying relational dysfunction within the family so as to reduce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Key words : relational aggression, psychological control, family triangulation, self-appraisals